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 / 임직 감사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1ST SUNDAY AFTER EPIPHANY

주후 2020년 1월 12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21 장 “다 찬양하여라” (새21)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76 번 취임식 (Inauguration)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강석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요한복음(John) 21:15-19	김 현집사
찬 양 Anthem	“너를 지키시길 원하네”	찬양대
설 교 Sermon	“흔들려도 이 길을” (Nevertheless This Way) (차타누가한인장로교회)	문은배 목사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찬 송 Hymn	347 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새212)	다같이
안수/임직식 Ordination/Installation	(별지 참조)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424 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새380)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박대웅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부르심은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부응하지 못했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항상 주장하시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엡 4:11-12, 골 3:17)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한글개역 **요21:19**)

“Jesus said this to indicate the kind of death by which Peter would glorify God.

Then he said to him, ‘Follow me!’ ” (NIV **John 21:19**)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1/12 (주일)	1/13 (월)	1/14 (화)	1/15 (수)	1/16 (목)	1/17 (금)	1/18 (토)
	창13	창14	창15	창16	창17	창18	창19
본문	마12	마13	마14	마15	마16	마17	마18
	느2	느3	느4	느5	느6	느7	느8
	행12	행13	행14	행15	행16	행17	행18

수/요/찬/양/집/회	토/요/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1/15 오후7:30)	“회막 사면으로 진을 치라”(민2:1-2, 34)
토요 새벽기도회(1/18 오전6:30)	“성례의 정의와 효력”(고전11:23-29)

지난 주일(1/5) 말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교회”(히 12:14-17)

올해(2020년) 우리 교회의 주제 성구인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히12:14)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마치 악기 연주자가 연주에 앞서서, 먼저 악기를 조율하는 것과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과 삶에 중요한 기준이며 또한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만약) 화평함과 거룩함을 놓치게 된다면, 이것은 (마치) 조율이 안된 악기로 연주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되며? 또한 우리는 무엇을 경계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반복적으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라”

고 세 번씩이나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1)은혜의 결핍을 두려워하고(히12:15상), 2)쓴 뿌리를 두려워하고(히12:15하), 또한 3)음행과 망령됨을 두려워하라고(히12:16)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거나, 은혜를 거부해서 나타나는 모습이기때, 우리가 경계해야 하며, 쓴 뿌리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며 자신을 괴롭힐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더럽힐 수 있기에, 경계해야 하며, 음행과 망령됨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화평을 이룰 수 없기에,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 전하는 화평함과 거룩함은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화평함)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거룩함)를 세움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기에, 우리는 끝까지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설/교/ 메/모